

## 주님안에서 주종관계를 발견하라

사무엘상 1:15 & 민수기 12:11

주님 안에서 주종 관계를 발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영광을 올립니다. 귀한 샌앤토니오 감리교회에 설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93 년도부터 필리핀에서 선교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난주엔 올란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회관에서 열렸던, 미국 기독교 선교사 연합 총회의 초청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필리핀 선교 내용을 보신 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미국, 필리핀에도 교회, 성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40 여 년간 신앙생활과 목회를 체험 후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눈에는,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진정 성경적이며, 복 받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가야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 가다간 교회가 세상 적 교회가 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입니다. 한국, 필리핀, 미국도 민주주의 이지요. 우리의 정부, 학교, 관공서들은 민주주의를 따라야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역, 행정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 장, 신명기 1 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바로 순종치 않고 1.2 탐정 중에서, 믿음이 좋은 2 명의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대다수 10 명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 하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 했지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쓴물이 흐르는 땅과, 전갈이 많은 사막을 40 년간 방황 했지요.

교회 안에서 민주적으로, 대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우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따라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말씀 따라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건한 관계를 찾아봅시다.

### 1.주여(LORD)주여(Lord)!: 하나님이 주인 되심!

시편 8 편 1 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선지자 다윗왕은 시편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주인 은 예수님 이십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 위에 사람과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한글은 주여 라는 같은 단어지만 사역적인 위치에서 영어 성경에선 LORD 와 Lord 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인 의식을 세워갑시다. 늘 순종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종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 2.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경적 주종 관계

성경에는 기록 되었으나, 우리에게 발견 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의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와 목사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 장에는 엘리 선지자와 기도 많이 하는 성도 한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성도 한나가 그 성전의 담임 목사에게 내 주여! 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담임목사인 엘리 제사장은 성도의 울부짖는 기도 내용도 모르고, 그 기도 스타일도 이해하지 못했기에 성전 문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 장 10 절의 한나의 기도와 히브리서 5:7 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엘리제사장은 그 기도를 오해하고, 야단 치셨지요. 삼상 1:14 에서; "언제까지 술이 취해 있겠느냐?" 그때 한나는 겸손히 대답하기를 삼상 1:15 "내 주여 그렇지 아니 하외다."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한 이유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엔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입만 움직여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 제목과 사정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하며 야단치는 목사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선 아들을 허락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허락 하십니다. 삼상 1:17 "평안히 가라 너의 구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 하시리라.

여기서 볼 때 ,현대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오해 하던가 야단친다 해도 한나 성도처럼 겸손히 목사님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여!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성도는 열심히 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기도도 안하고, 성도들 사정도 모른다고 비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 기도 많이 했던 성도 한나는 아무 불평이나 비평 없이 겸손함으로 아들을 허락 받고,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윗,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치로 성공 했고, 삼상 7:15 에선 사무엘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판사 위치로 성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영적 주인으로 인정하고 잘 모셔서 하늘나라 상급과, 이 땅에서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과 사람사이에 성경에 나오는 주종 관계는 바로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과의 관계입니다. 민수기 11:28 에 보면, 부 교역자 여호수아가 그 담임 목사님 모세를 "내 주여, 금하소서!" 하며 주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의 목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부 교역자와 중간 지도자들도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함께 일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7:7 에서 형 아론은 83 세 동생 모세는 80 세였지만 출애굽기 4:16 에서는, 동생 이지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모세는 형 아론 부 교역자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했지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목회 방침과 방법은 변형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하나님의 목회 방침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2 장에 보면 담임 목사님 모세가 이방인으로 무시당하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 하는데 반발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중역 부 교역자들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까지 들먹이며 너나 우리도 같은 주의 종으로서 똑같이 응답받는 같은 위치를 강조 하며, 담임 목사님 모세를 월권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 선지자는 문둥병에 걸리는데, 이를 제일 먼저 앞에서 본 형 아론은 동생 목사님께 사정하며 회개 합니다. 민 12:11 에서 "제발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죄를 졌으니 죄 값을 당치 않게 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형 아론은 담임 목사인 동생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며, 무서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서 일 했을 때가 있었는데, 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잘 받들고, 서기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알지 못했을 때라서 그땐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무 아부하는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속으로 비평하기도 했었지만, 이러한 성경 구절들과 성경적, 하나님의 목회 스타일을 알고 나서는 나도 그 부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적용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때 그 부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 일을 통하여 섬겼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섬겼었습니다.

요한 1 서 4:20 절에 "누구든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으니, 보이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부 교역자들 아니면 잠시 다녀가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 다 같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교회에 축복이요, 여러분의 일과 자녀들까지의 축복입니다. 다른 직업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일만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우리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 하며 섬깁시다. 이 땅의 영적 주인을 잘 섬겨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나, 박사님, 교수님이신 목사님들이 이 곳을 방문한다 해도, 그 분들이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만이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 달라고 기도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영적 주인으로 잘 모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의 직업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지어다. 교회의 소망이 넘칠 지어다.